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2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30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1. 30. (수)	담당부서	바이오나노과
담당과장	김동주 과장 (044-203-4390)	담 당 자	서성태 서기관(044-203-4391)

바이오 벤처 투자 확대로 역동성 높아질 것

- 산업부, 385억 원 규모의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펀드 결성 -

□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이 **창업 초기에 투자 자금을 좀 더 손쉽게 조달**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○ 11. 30. **산업통상자원부가 100억 원**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출자)을 출자하고, **㈜엘에스케이(LSK)인베스트먼트 등 17개 민간 투자자가 이 285억 원을 출자**해 **총 385억 원 규모의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펀드가 조성**했다.

□ 이번 펀드의 주요 특징은 창업 초기에 자금난*을 겪고 있는 **바이오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키 위한 정책 펀드**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.

* 투자 회수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중·후기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

○ 이를 위해, **조성 총액의 45%**(175억 원) **이상을 창업 5년 미만의 바이오기업에 대해 투자**하도록 정했다.

□ 주된 투자 대상이 창업 초기기업으로 설정되어 고위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, 민간 출자금액이 당초 목표인 200억원*을 초과하여 285억원을 모집한 것은 **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**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* '15년 신성장동력펀드의 정부:민간 출자비율이 1:1.5 였던 점을 감안하여 설정

□ 펀드 운용은 산업부의 운용사 공모를 거쳐 선정된 **㈜엘에스케이(LSK)인베스트먼트, 비엔에이치(BNH)인베스트먼트(유)가 공동**으로 맡게 되며,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앞으로 8년간 펀드를 운용한다.

○ 기업당 투자 규모는 조성 총액의 20%(약 77억 원) 이내로 제한해 **보다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골고루 혜택**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들은 투자자금 확보 이외에도 **한국바이오협회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(CEO) 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창업 보육 프로그램*을 무상으로 지원**받게 되고, **선배 벤처기업인들로부터 생생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**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.

* 주요 사업: 최고경영자(CEO) 육성 프로그램(회계·마케팅 등 교육), 단계별 벤쳐캐피탈(VC) 매칭 프로그램(후속 투자유치), 성공기업 멘토링, 국내외 제약사·벤처와 네트워크 구축 등

□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"이번 펀드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**원활한 자금 공급**은 물론, **창업자들간에 상생 협력하는 문화 조성**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**역동성을 높이고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**으로 기대한다. 라고 말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서성태 서기관(044-203-43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